

강진 친환경 유기농 인증 면적 확대

종합보험 지원·유기농 거점단지 조성 올해 친환경 재배 인증 1,400ha 목표

강진군이 경지면적 중 10.8%인 1,400ha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키로 하고 유기농 중심 인증품목 다양화와 인증면적 확대를 추진한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무농약 벼 인증 필지 중 과거 5년(5회) 동안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이 중단되고, 2019년부터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유기전환기로 상향 인증시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 2019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유기농업자제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기농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한 특수시책으로는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유기농 거점단지 조성지원, 유기단지 벗길 환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친환경인증 품목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10~20원씩 인상한다. 동시에 쌀의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고 과수와 일반작물로 나눠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무농약 벼 인증 친환경실천농가들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유기전환기 및



강진군 한 농가에서 제초를 위해 눈에 새끼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다.

유기농으로 상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강진군은 논두렁 제초 및 물 관리를 제

외하고 유기약제 공동방제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가 노동력 절감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기법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오랜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남용에 따른 유기합성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땅을 만들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는 평가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인증대상 목표를 1,400ha로 정했다”며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 증가는 물론 직접인 성장을 추진해 안전농산물 1번지로서의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저비용 친환경농업 대중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 민선 7기 군정방침 공모

영암군이 민선 7기 군정방침을 새롭게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영암군민과 향우, 군 산하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응모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정방침은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군정 비전에 민선 7기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군 이미지·정체성·지역특성·미래비전 등 전남 서남권 동반성장의 중추도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함축적이고 독창성 있는 문구이어야 한다. /영암=최복섭 기자

전동평 군수의 5대 핵심공약 사업인 ▲미래 생명산업인 중자산업 육성, 최첨단 농업 선도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경비행기 항공·드론·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 ▲6만 군민이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아름다운 관광도시 육성,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만들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표현하면 된다.

영암군은 우수 공모작중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 상당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최근 해마다 가뭄으로 큰 피해가 발생되는 고금 가교지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완도 고금 가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완도군은 해마다 가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고금가교지구 일원농산여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19년부터 사업비 73억을 투입,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금 가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고금 정룡천(지방2급하천) 하류부에 양수장을 설치, 바다로 자연 방류되는 하천수를 펌핑해 가교지구 61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가뭄피해가 발생했던 가교지구는 영농여건이 개선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2019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신안 이동신문고 운영

행정분야 고충민원 상담

신안군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신안군청과 암태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도서로 이뤄진 신안군의 여건을 감안해 신안군청 보건소 4층과 암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은 일반행정과 문화, 교육, 노동, 산업을 비롯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신안군은 지난 20일 신안군청 보건소 4층과 암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운영했다.

각종 부패 행위 신고와 건강·안전·

환경·소비자의 이익·공익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도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에 많은 군민이 참여해 군민들의 고충과 분야별 불편사항이 해소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완도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노화읍 도로 상·하수도 71.73km 전자지도 구축

완도군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땅속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1/1000 수치지형도에 전자지도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총 6억6,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노화읍 도시지역 도로 22km, 상수도 24km, 하수도 25.93km 등 71.93km를 추진할 계획

이다. 완도군은 지난 5일 용역업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를 실시,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했으며 기술협상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도로굴착 등으로 발생하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정보 구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도읍 도시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실시해 도로 63km, 상수도 207.47km, 하수도 102.69km에 대한 DB를 구축했다.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내고장 사람들



신우철 완도
군수는 22일 오전 11시 완도 다이아예식장에서 열리는 국제로타리 3610지구 완도클럽 회장단 임취임식에 참석, 축하한다.



이동진 진도
군수는 22일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조도분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치매 예방교육에 참석한다.



박석무 다산
연구소 이사는 22일 오후 1시50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다.

해남 에너지바우처 환급

해남군은 2017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자에 대한 환급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시스템의 한계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신청 및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해 지원금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다.

환급 신청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인 환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목포 010-3272-2765
- 011-632-0323
- 010-3635-6777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고향 소식



무안 미취학아동 건강교육

무안군이 평생건강습관 형성기인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무안군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희망기관 13곳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 구강, 흡연·음주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진행해 건강한 생활습관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목포경찰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목포경찰서는 지난 20일 목포역에서 전라남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하나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30여명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두 행진, 노인인권사건 전시 등 홍보·체험 활동을 진행, 지역민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인식 개선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김동근 기자



영암장애인복지관 힐링여행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1일 농아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을 위한 제주도 힐링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문화·탐방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회활동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이번 힐링여행은 농아장애인과 가족 25명이 참여, 제주도 관광지 관광 및 체험에 나섰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 안전요원 자격 시험

신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1일 안좌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재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안전요원 자격취득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자격취득 과정은 위기상황 행동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강의 후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탐색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